전북불교회관 108산사 순례단 4기 회향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108산사 순례단(지도법사 보연)이 4기 순례를 회향하고 5기 순례길에 올랐다.

지난 2000년 11월 당시 금산사 주지이던 도영 스님이 발의해 조직된 108순례단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사찰을 찾아 108번뇌를 닦는다는 의미로 창단됐다.

매기마다 108산사를 순례하면 회향하고 다시 입제하면서 12년 동안 4기 회향을 맞고 5기 순례길에 올랐다. 매 기수마다 연인원 3000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다녀온 사찰 숫자만 500여개에 달한다. 그동안 동참 회원들 수는 1만 5000명에 육박한다.

5대 적멸보궁과 삼보사찰은 물론 전국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참회기도 정진을 하며 신심을 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결제철이면 봉암사, 대승사와 같은 선방의 대중공양을 하고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108산사 순례단의 가장 큰 성과는 회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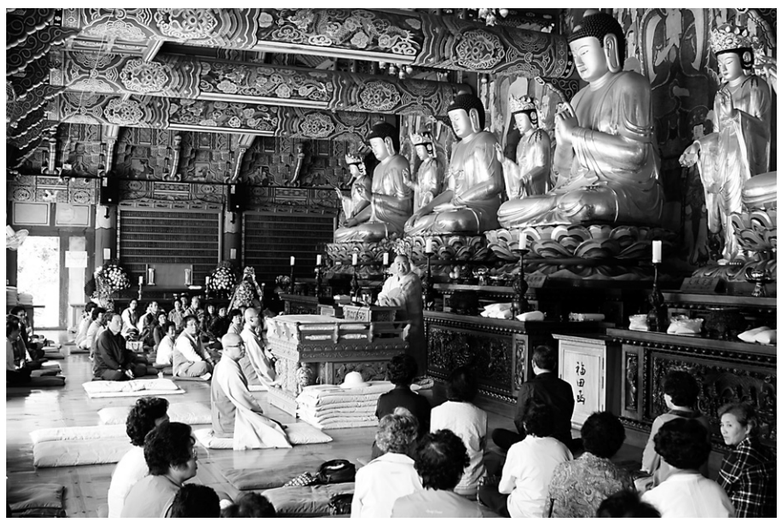
순례길서 만난 한 회원은 자신은 아직 불자라고 할 수 없지만 친구와 함께 순례길에 따라 나서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며 불교를 알아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달 4기 회향을 맞은 순례단은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회비 중 약 2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지역 불교계에 회향했다. 그동안 지역불교계에 군불교발전기금이나 포교기금으로 회향한 금액도 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4기에는 전주 혁신도시의 포교당 토지 매입기금 1000만 원과 금산사 복지원에 운동기구, 전북불교회관에 복사기를 구입해 기증하기도 했다.

동참자 1만5000명 달해

포교기금 8000만원 모연

포교당 토지매입 복지지원 나서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전북불교회관 4기 회향식 및 5기 입제식 장면

초대 김기운 단장에 이어 순례단을 이끌어 온 주정기 단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108산사 순례는 순례사찰의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당해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 문화유적지도 함께 순례하는 불교문화유적 순례에 주안점을 두는 성지순례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정기 단장은 이어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의 사찰도 순례하면서 우리 지역의 불교역사유적에 대한 관심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24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보연 스님과 130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4기 회향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지난 3년간 뛰어난 신심과 원력으로 108산사 순례를 마무리한 순례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출범할 5기 순례단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기 임원단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3년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한 이록순 씨와 이옥순 씨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5기 108산사 순례단은 입제식에 이어 군산 은적사, 김제 흥복사, 완주 송광사 순례길에 올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1월 전북서 세계순례대회 열려

600리 구도(求道)의 길, 그 아름다운 길이 전북에서 열린다.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이 마련한 세계순례대회는 11월 1~11일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등 4대 종단 지도자와 신도 등 1만여명이 참가한다.

11월 1일부터 9박 10일간 걷고 10일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종교화합 한마당이, 11일에는 세계순례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는 티베트 종교문화부 삐마 친조르 장관(불교), 세계평화회의 공동 대표인 이오은 교무(원불교), 로마 교황청 순례특사인 조셉 칼라피 파람빌 대주교(천주교) 등이 순례와 종교 화합의 상관관계를 조명한다.

순례가 진행되는 길은 전주~완주~김제~익산을 잇는 240㎞로 순례길 선포 이후 전국에서 해마다 1만명 가량이 이 길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이 길을 '2010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길'로 지정하기도 했다. 순례길은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 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명의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불교문화의 정수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으로 연결된다.

개막식은 11월1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폐막식은 11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수곤 조직위원장은 "4대 종교가 순례길을 통해 통합하듯 이 길을 걸으며 분열과 반목의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월 8일 광주 생명나눔 음악회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오는 10월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생명나눔 콘서트5'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광주전남본부의 홍보가수로 활동 중인 주권기 씨의 콘서트를 겸한 공연으로 임지형(광주현대문용단), 이환희, 유미랑, 한서은, 아리아 등이 재능기부로 출연할 예정이다.

유한진 사무국장은 "주위에 난치병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을 주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 보내는 음악회이므로 많은 참여바란다"고 했다.

15년간 생명나눔 홍보가수로 활동 중인 주권기 씨는 "이번 음악회에는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병고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힘을 보태고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

5회째 맞는 이번 음악회는 수익금의 전액이 환우들에게 전달되며, 음악회에는 생명나눔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홍보활동이 같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 5회 선운문화제 성료

보은염 이운식 · 산사음악회 · 음악놀이경연 열려

보은염 이운식에서 법만 스님이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

가을의 전령사 꽃무릇이 일주문에서 도량곳곳에 붉은 카펫을 펼쳐 놓은듯한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제5회 선운문화제가 9월 22 ~ 23일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제5회 선운문화제는 1500년 전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이 양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보은염 이운식'을 토대로 전개된다.

행사는 검단마을 사람들이 백제시대 의상을 입고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소달구지에 싣고 선운사에 도착하며 시작한다.

행사에서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과 이강수 고창군수, 고창군의원들이 행렬을 맞이하며 함께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렸다.

이와 함께 'KBS 찾아가는 음악회'가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돼 선운사 스님들과 종무원들로 구성된 선운사 밴드가 음성공양을 올렸다. 또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소프라노 김주연, 하피스트 곽 정, 가수 박완규, 타악 연주자 최소리 등이 출연하는 공연이 이어졌다.

23일 같은 무대에서 열린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전북지역의 청소년들이 밴드, 노래, 댄스, 국악부분으로 나뉘어 동아리 활동으로 다져진 자신들만의 다양한 장기를 뽐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참가 신청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예정에 없던 예심을 거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공연참가 열기를 반영했다.

대상인 교육감상에는 노래에 크레센도, 댄스 베아트리스, 밴드 에어포일, 국악 어울림 팀이 선정되는 등 12개팀이 수상했다.

이밖에 만세루 주변에는 서각 전시회와 꽃무릇 시화전이 열려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립광주박물관 '절강성의 보물' 특별전시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금동불좌상 등 선뵈

항주 뇌봉탑 금동불좌상.

중국 절강성의 1급 유물이 광주에 온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중국 절강성박물관과 국제교류전시를 통해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절강성의 보물'을 특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총 6부의 주제로 ▷1부 절강성의 선사문화 ▷2부 분열과 통합의 시대 ▷3부 절강성의 불교, ▷4부 청자의 본향 ▷5부 중국회화 500년 ▷6부 절강성 박물관 소장 문화제 등 전시된다.

특히 절강성의 불교전에는 항주 뇌봉탑에서 나온 중국 1급 유물에 해당하는 금동불좌상, 아육오아탑을 비롯해 중국 5대 시대의 보살상이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벼를 논에서 재배한 하모도 유적과 신비로운 백옥기로 유명한 양저문화의 유물, 월왕 주구의 검(劍),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청자유물 등이 전시된다.

조현종 관장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최초로 중국 최대의 유적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이다"라며, "전시회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교환전시회로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012년 12월 중국 절강성박물관에서 '신안해저침전선과 강진 고려청자' 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천불천탑'의 신비가 있는 운주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전남 화순군은 9월 6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서원 · 전통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증진 연구' 보고서에 "유산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에 단독유산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운주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불교문화와 서원을 통한 유교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세계에 알려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의 전통 사찰과 서원을 답사하면서 운주사를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전라남도,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11월 경에는 천불천탑 운주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계 전문가 그룹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운주사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전문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운주사와 세계유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앞으로의 전략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때의 세미나를 통하여 추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한 종합 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남 화순군 천불산에 위치한 운수사에는 연화탑과 굴미륵석불, 보물 제796호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臥佛)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